

휘발유 가격인하 연장 못하겠다!

GS칼텍스, 일부 직영주유소 공급중단 ... 적자구실 만들려는 속셈

GS칼텍스가 수도권 일부 직영주유소에 석유제품 공급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지역에 위치한 GS칼텍스의 일부 직영주유소는 최근 수일째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사흘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리터당 100원씩의 기름값 할인정책이 시행된 4월7일 이후 일부 정유사가 자사와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무폴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을 빚은 적은 있지만, 자사 폴을 달고 있는 직영 주유소에 까지 공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해당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기름이 없어 공급을 못한다고 해 사흘째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GS칼텍스 관계자는 “기름값 할인정책을 2달째 진행하면서 수급이 많이 타이트해진 상황”이라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기름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할인정책이 시행된 이후 2달 이상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적자규모를 줄여보기 위해 아예 일부 직영주유소에 석유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사실상 정부에 등을 떠밀려 리터당 100원 할인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팔아봤자 적자만 보는 국내 판매물량을 줄이고 수출물량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등 정유3사는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4월7일부터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한 바 있다.

SK에너지는 다른 정유3사와 달리 카드할인 방식을 택했으며, 정유사들의 인하조치는 7월6일 종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14>